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5)

오늘 농촌전도단 파송식

농촌전도단이 오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돌입한다. 전도단은 8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3박 4일간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소재 서천청운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전도단은 축조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도 열 예정이다. 또한 지역봉사와 의료 및 미용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편다.

농촌전도단은 지난 며칠간 전도훈련과 기도회 등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새로이 하고 전도활동을 준비했다. 전도지를 마련하고 전도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도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쳤다.

농촌전도단은 지도 김정현 목사, 단장 김영준 장로, 진행 이순환 목사, 박귀환 목사, 신미숙 전도사 등 교역자를 선두로 전도분과, 의료봉사분과, 미용봉사분과, 교육분과(성경학교 진행), 재정분과, 찬양분과 등으로 조직되어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성도들은 전도단 활동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전도단 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미용재료, 의류 등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있다.



▶서천 청운

교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10-6번지 소재 농촌교회이다. 거리는 서울에서 차로 약 3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교인은 현재 남성도 6명, 여성도 14명에 어린이 15명 등 총 35명이 출석하고 있다. 설립된 지 7년 됐으며 4년 전 교회를 신축했다. 인근주민은 약 120세대에 이른다. 교회 뒤편으로 농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다와도 가깝다. 담사담에서는 현재 교회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담임교역자 강성동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의욕적으로 교회부흥을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서천 청운교회는 현재 배드로 제 4선교회와 바울 제 4선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촌전도단을 위한 기도

1.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주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2. 악한 세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3. 서천청운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동감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전도대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5. 농촌 전도단원들의 활동을 마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6. 복음전파 사업에 온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서울성경대학 내달 7일 개강

룻기 · 마태복음 · 요한서신 · 요나 · 욥기반 등과 음악교실도

평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가 9월 7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네번째 학기를 맞이하는 욥기반(아담반)를 비롯하여 룻기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등의 강좌 개설되었다. 이번 학기 강의 시간은 월 · 화 · 목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이다.

또 음악교실도 세번째 학기의

문을 연다. 음악교실은 목요일에 제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 1교시는 7시 30분부터 음악이론을 공부하며 제 2교시는 8시 15분부터 발성과 가창훈련으로 진행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오천원이거나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오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의 강좌, 시간, 강사 및 개강일은 <표>와 같다.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룻기	월요일 오전 11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마태복음	월요일 오후 8시	김정현 목사	9월 7일
	요한서신	화요일 오전 6시	민영수 목사	9월 8일
	요나	화요일 오후 8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0일
음악 교실	음악이론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진희 선생	9월 10일
	발성과 가창훈련	목요일 오후 8시 15분	배영준 집사	

이사야 강해

무너지는 이스라엘 II

이사야 9장 13 - 17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 형제를 죽이는 잔인한 죄를 범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정치적 부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1. 갑작스런 진노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리란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이름만 걸었을 뿐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꼬리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것을 지적 해주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쳐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부자들이나 권세가들의 비위나 맞추는 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꼬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종려가지는 상류층의 사람, 갈대는 하류층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로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나, 상류층과 하류층 사람들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라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갑자기 환난이 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마침내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갑작스런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삼니다.

2. 모든 계층의 멸망

머리와 꼬리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 즉 국가 전체가 함께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 매를 맞아야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다고 했으니 이것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찾지 아니하도다 이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사 9:13-17)

이종운 목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에는 바알이라는 지방신을 왕이 앞장서서 섬겼습니다(열왕 16:29).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베가 왕 역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오도를 받은 백성은 그 모습이 설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독신죄(Blasphemy)를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미련하니가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려 설만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입니다(사 32:6).

3. 멸망의 대상

멸망을 받을 대상은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장정들 곧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젊은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청년은 나라를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나라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멸망 받을 또 하나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도울 자 없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장정들에게도 고아와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한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중이 범한 죄는 그 죄가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17절).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머리와 꼬리가 다 잘리고 종려가지와 갈대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이 있다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시민대학을 수료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신 헌신과 봉사 창·취업으로 은혜에 보답할 터

서울시민대학이 취업준비과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주간의 교육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소자본 창업을 고려중인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알차고 친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종운 학장님의 경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학장님께서서는 믿음을 가진 학생에게는 믿음을 더 키워주셨으며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전능하시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셨습니다.

김재술 소장님의 정열적이고 전력투구하시는 강의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직후 강의시간은 일반적으로 졸음에 시달리는 시간임에도 소장님의 명강의는 졸음을 천리만리 쫓아버렸습니다. 조춘택 실장님, 이학주 교수님, 이운진 박사님, 김경옥 사장님의 정성어린 강의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갈하고 정성이 담긴 음식과 다과는 우리의 피로를 말끔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의 이번 교육은 영업직에 관한 풍부한 지식만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가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전해 주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전심전력하는 마음가짐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들 학생 일동은 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 헌신하는 길이 서울시민대학의 커다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운 학장님, 여러 강사님, 총무처장님, 학감님, 그외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서울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강석(서울시민대학 제 2기 수료생)

청년부수련회에서

세족식에서의 감동

한선규(청년부)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서 과거의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은혜롭고 감사했다.

작년 말 겪은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까지 몸도 제대로 추스리기 어려운 까닭에 수련회에 동참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쉽게 결심하기는 어려운 행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수련회의 동참을 결심하고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

이번에 내가 경험한 수련회 기간동안 가장 내게 은혜로웠던 것은 마지막 밤에 행해진 세족식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심정으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위하



여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감히 그 어떤 수식이라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며 자신의 신앙고백을 새롭게 다지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이후로 내가 살아야 하는 생의 마지막까지 이번 수련회 동안 경험한 하나님

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나를 위하여 배려해 주시고 도와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달 3일부터 98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최근 뱃다 들어붓는 비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도처에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수련회가 열렸던 강원도는 당시 날씨가 아주 맑고 좋았다. 덕분에 설악산 국립공원과 동해바다에서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공동체 훈련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3박4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장소도 도심에서 떨어진 강원도 설악동에서 열려 직장인과 학업을 잊고 안식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란 주제 하에 김정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풍성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참석 회원들은 무엇보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우리의 죄악의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고 서로 섬기며 존중하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며

정치은(청년부)

며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간구했다. 최근의 어려운 직장 형편으로 볼 때 청년부 회원들의 경우 수련회 참석이 사실 쉽지는 않았다. 어떤 회원은 휴가를 전격적으로 내기도 했고 어떤 형제 자매는 겨우 시간을 내어 개별적으로 수련회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는 청년부 회원들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고 보다 큰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이런 수련회를 마련토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장로님 또 여러 분들의 후원에 정말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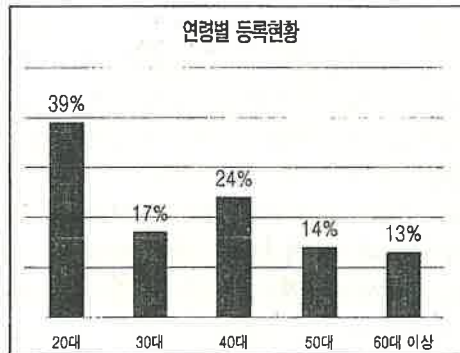
'98상반기 새가족 양육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등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새가족부가 98년 상반기 새가족 양육상황을 점검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131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으며 이중 77%인 101명이 본 교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의 경우 연령별로는 20대 등록자가 51명으로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까지 합하면 전체의 5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63%를 차지하여 남자보다 많았다. 또 신급별로는 원입교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교회 인근 교구인 1, 2, 3, 4교구에 소속되는 새가족

이 54%를 점했다. 인도자는 본교회 교인이 73%, 본인 스스로 출석하게 된 경우가 27%였다. 월별 등록자 수는 큰 차이 없이 20명을 상회하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등록자가 참석하는 예배는 주로 II부예배(68%)였으며 I부예배는 8%에 불과했다.



한편 수료의 경우 8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친 새가족은 전체 등록교인의 47%인 6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 수료자의 95%가 교회에 정착했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70명 중에도 61%인 43명은 계속 예배에 참석

하여 교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가족 교육 수료도에 있어서는 원입교인이나 세례교인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수료 후 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집사(50%)나 세례교인(33%)의 참여도가 원입교인(28%)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의 봉사참여율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정착도에서는 이들 연령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등록이후 정착까지 젊은 층에 대한 교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수료자 중 3분의 2에 이르는 새가족이 적절한 봉사부서를 찾지 못하고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례자 컬럼

가장 고상한 지식

지식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했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지식도 있으며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 도리어 근심하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며 교만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빌3:8).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관계처럼 상호 교제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지식을 가진 이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주님은 약속 하셨다.

서울시민대학 '취업준비과정세미나' 수료식 거행

지난 7월 16일(목)에 시작, 4주간 진행된 지난 주 서울시민대학 2기 '영업직 취업준비과정세미나'가 6일(목)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 학장 이종운 목사는 잠언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남호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현재 난국에 처한 우리 현실에 정부와 행정당국이 가야 할 바에 대해 향도적 역할을 감당했으며

큰 도전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구청 내에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료식을 가진 서울시민대학 제 2기에는 모두 113명이 등록했으며 총 30시간의 강의시간 중 24시간이상 출석한 43명이 수료했다. 강의는 판매직의 비전, 영업의 기본자세, 고객관리 방법 등 총 9개 과목이 다루어졌으며 7명의 강사가 참여했다.

등정

- ◇ 이종운 목사는 10일(월) 전남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호남지역 목사·장로선교대회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 ◇ 이은혜 성도(고동부, 11교구 오금다락방 이규대·김은규 집사 딸)는 그린배 전국 중·고등부 학생골프대회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다.
- ◇ 오늘 점심식사는 김태중·육영순 성도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2. 농촌전도단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3. 제 14학기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